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

Parent-Child Communication, Peer Relationship and Internet Addiction in Children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연화
교수 정영숙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Ph. D. Course : Kim, Youn Hwa
Professor : Chong, Young Soo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 on children's internet addiction. The subjects were 642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Daejeon city. Cronbach's α , t-test, ANOVA, and Duncan's test were employed in analyzing the data by using SPSS 10.0.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boys were more addicted to internet use than the girls, as were the children of less educated parents. The children of parents with professional careers were less addicted to the internet. The children who perceived their school achievements as low were more addicted to the internet.

Second, the children who spent more time daily, longer time at once and more frequently per weekly internet use were more addicted.

Third, internet addiction was influenced by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eer relationship. Boys who had more problem communications with their parents less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 and a lower level of peer support were more addicted to the internet.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with their mother and conflict in their peer relationship had more influence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girls.

주제어(Key Words):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인터넷 이용(internet use),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parent-child communication),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

1. 서론

인터넷은 서로 다른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사용자와 연결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통신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을 일컫는다. 인터넷을 통하여 서로 다른 컴퓨터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전자우편, 인터넷상의 동호회나 카페, 파일 검색 및 전송 뿐 아니라 인터넷 뉴스, 전화, 팩스 등의 서비스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이용이 다양해지면서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를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 한다(Young, 1996).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아동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며, 다른 중독과는 다르게 접촉을 아예 끊고 살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는 Goldberg(1996)에 의하여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용어로 처음 제기되었으며, Young(1996)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Brenner(1997), Griffiths(1999) 등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Goldberg(1996)는 인터넷 중독을 '병리적이고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으로 규정하고 DSM-IV의 도박 중독장애를 기준으로 인터넷 중독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이후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인터넷에 지나치게 접속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지장을 받는 상태로 의 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증상들의 반복적, 만성적 활동 장애라고 보고 있다. 즉,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문제행동으로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의 특성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중독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6~19세의 인터넷 이용률이 95.5%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 동안 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가 38%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

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이는 10대의 아동과 청소년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용빈도가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이용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인터넷에 과도하게 심취하여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현실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현실 부적응, 학업 부진, 대인관계의 실패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10대 아동 및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며칠씩 밤을 새며 게임에 몰두하여 병을 얻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동이 성장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부모는 아동과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이며 책임을 공유한 밀접한 관계로 부모의 비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언어적 표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Ginott(1980)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자녀들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고, 충고나 지시를 할 때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Weber & Fournier(1985)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이해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 속에 포함된 의미와 행동양식을 내면화하여 발달시켜 나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며 행동양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변하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였고 자녀의 수도 줄어들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동이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부모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자녀들은 혼자있는 시간을 보내거나 부모에게 받지 못하는 정서적 지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받기 위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청소년이 부모의 의사소통이 일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박정은, 2001; 백승문, 2002; 조춘범, 2001),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낮을수록(이인숙,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

독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박영희, 2002) 보고 있다. 이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때 부모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한다면 부모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관심과 애정의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채우려고 더 인터넷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아동이 성장하는데 부모와의 관계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또래관계 역시 중요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후기가 되면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어(Furman & Buhrmester, 1985)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성격·정서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또래관계는 애정이나 관심, 흥미 및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독특한 애착과 친밀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 작용을 하는 관계로(Hartup, 1993), Sullivan (1953)은 아동이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래관계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성 기술이 부족하거나 수줍음이 많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아동은 정상적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키지 못해 또래들 사이에서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 비행에서 음주문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듯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 및 청소년은 현재생활과는 다른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또래의 지지가 낮고, 갈등이 있으며, 친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청소년은 인터넷의 중독경향이 높게 나타나(이숙, 남윤주, 2004; 조춘범, 2001; 황수정, 2000) 또래에게 받지 못하는 관심이나 지지를 인터넷을 통해 대리만족 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임을 시사해준다.

Young(1999)은 자존감이 낮거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더 중독된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은 현실세계에서 사회성 기술의 부족으로 대인관계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지지가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강한 유대감도 갖게 되어 사이버 공간에 더욱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Young(1998)은 'Caught in the Net' 에서 가족 내에서 사이버 중독증 환자로 진단되는 대다수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이지만 진짜 문제는 가족 내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가족과 사회의 냉담한 자세로 청소년이 고립감을 느끼게 되면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의 억압된 감정과 감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인터넷 공간에 빠져들게 되어 인터넷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가족과 사회가 그 청소년을 인터넷 중독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Griffiths (1999)도 인터넷은 청소년에게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경쟁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매체이기 때문에 중독적으로 이용한다고 보고, 사회화와 가족 및 또래집단이 인터넷의 중독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즉, 가족과 사회는 아동 및 청소년 개인에게 중요한 환경으로서 작용을 하고 청소년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이므로(박성길, 2003), 가족과 사회가 아동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개인요인인 자기통제, 자기노출, 인터넷 환경요인인 컴퓨터 게임, 생활환경(구은정, 2003; 김유미, 2000; 배경화, 2004; 송원임, 2001; 이경남, 2003)등을 다루고 있어 가족요인과 사회환경요인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성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경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분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는데,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성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는 선행연구(구은정, 2003; 서주현, 2001; 양돈규, 2000; Brenner, 1997; Greenfield, 1999; Griffiths, 1997)가 있으며, 반면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보는 선행연구(이숙, 남윤주, 2003)가 있다. 이에 아동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가족요인과 사회환경요인인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래관계를 성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요인 및 또래요인과 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다룬 연구도 드물고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더욱이, Brenner(1997)는 인터넷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후기 아동의 인터넷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을 방치한다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동의 인터넷 중독적 이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인터넷 이용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을 알아보고,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소통과 또래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의 또래관계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아 아동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은 아동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은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인터넷이용 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은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5개구에서 1개교씩 모두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6학년 아동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6학년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며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아동의 인터넷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조사는 대전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하

였으며, 소요시간 측정과 질문지의 이해정도를 살펴보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되었으며, 7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58부를 제외한 642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 326명(50.8%), 여학생 316명(49.2%)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학교 졸업이상이 429명(66.8%),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213명(33.2%)이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상이 343명(53.4%),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299명(46.6%)이었다. 아동이 자신의 학교성적을 '상'이라고 지각하는 학생은 300명(46.7%), '중' 266명(41.5%), '하' 37명(5.8%)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류층이라고 지각한 학생은 390명(60.7%), 상류층 215명(33.5%), 하류층 37명(5.8%)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유형은 공무원 133명(20.7%), 전문직, 사무직이 각각 126명(19.6%), 서비스직과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이 각각 107명(16.7%), 자영업 및 기타가 43명(6.7%)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전업주부가 345명(53.8%), 취업주부가 297명(4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핵가족이 573명(89.3%)이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대가족은 69명(10.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는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을 측정하는 문항,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동과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인 아동의 성, 학업수준, 부모의 학력 및 직업 등을 알아보는 문항과 서주현(2001)과 구은정(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동의 인터넷 이용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Scale)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Young(1996)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척도를 안석(2000), 서주현(2001), 구은정(2003), 배경화(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고로 초등학교 아동에게 맞는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질문지의 내용은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생활 및 학업태도 저하, 대인관계 문제, 정서적 부적응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항상 그렇다'는 5점을 주며, 점수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심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토대로 선행연구(김지연, 2003)를 참고하여 아동에게 맞는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40문항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의사소통 20문항,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20문항으로 나뉘어진다.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개방성 정도와 폐쇄성 정도를 측정하는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각 하위척도별로 개방적 의사소통 10문항, 폐쇄적 의사소통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적 의사소통의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에서 '항상 그렇다'는 5점을 준다(폐쇄적 의사소통의 문항은 역점수를 준다). 점수범위는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 각각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개방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폐쇄형 의사소통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자녀 의사소통 Cronbach's α 는 .86(개방적 의사소통 Cronbach's α 는 .90, 폐쇄적 의사소통 Cronbach's α 는 모-자녀 의사소통의 Cronbach's α 는 .87(개방적 의사소통 Cronbach's α 는 .89, 폐쇄적 의사소통 Cronbach's α 는 .74)이었다.

3) 또래관계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Furman(1985)이 제작한 사회관계망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 Inventory: NRI)를 한중혜(1996)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중 또래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33문항을 이용하였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이며 5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하위요인으로는 또래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으로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또래관계의 Cronbach's α 는 .92였고 하위요인인 또래지지 Cronbach's α 는 .93, 처벌/주도권 Cronbach's α 는 .51, 친밀 Cronbach's α 는 .71, 우의 Cronbach's α 는 .62, 대립 Cronbach's α 는 .64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인터넷 이용특성에 대한 빈도, 백분율과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인터넷 이용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분석을 하였다. 사후분석은 Duncan으로 실시하였다. 각 변인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변인들간의 영향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인터넷 중독경향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은 <표 1>과 같다. 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t=6.60, 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이하와 대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인터넷 중

〈표 1〉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

(n=642)

종속변인	독립변인		빈도(%)	평균(표준편차)	Duncan	F(t)값
인터넷 중독	성	남	326(50.8)	45.55(14.17)		6.60***
		여	316(49.2)	38.60(12.38)		
	아버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13(33.2)	44.54(14.23)		3.14**
		대학교 졸업 이상	429(66.8)	40.94(13.37)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9(46.6)	43.91(14.69)		3.07**
		대학교 졸업 이상	343(53.4)	40.58(13.29)		
	학교성적	상	300(46.7)	39.94(12.19)	a	7.29***
		중	266(41.5)	44.02(14.61)	b	
		하	76(11.8)	44.18(15.33)	b	
	경제수준	상류층	215(33.5)	40.45(12.78)		3.0
		중류층	390(60.7)	42.76(14.08)		
		하류층	37(5.8)	45.27(14.95)		
	아버지 직업	전문직	126(19.6)	39.93(13.55)	a	2.36*
		사무직	126(19.6)	41.27(12.35)	ab	
서비스직		107(16.7)	42.63(13.85)	ab		
공무원		133(20.7)	42.43(13.40)	ab		
자영업 및 기타		43(6.7)	42.54(14.92)	ab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		107(16.7)	47.93(15.00)	b		
어머니 직업	취업주부	297(46.2)	43.26(14.44)		1.94	
	전업주부	345(53.8)	41.16(13.08)			
아버지 연령	40세 미만	66(10.3)	45.94(16.81)		2.11	
	40~44세	372(57.9)	41.42(13.23)			
	45~49세	172(26.8)	42.40(13.38)			
	50세 이상	32(5.0)	41.13(14.12)			
어머니 연령	35세 미만	16(2.5)	43.81(16.94)		1.07	
	35~39세	212(33.0)	43.59(14.11)			
	40~44세	341(53.1)	41.45(13.56)			
	45~49세	62(9.7)	40.61(13.07)			
	50세 이상	11(1.7)	41.36(11.30)			
가족형태	대가족	69(10.7)	42.33(13.80)		-0.13	
	핵가족	573(89.3)	42.11(13.76)			

*p<.05, **p<.01, ***p<.001

a: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집단

b: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

독경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3.14, p<.01$),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낮은 아동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이 하인 아동과 대학교 졸업이상인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07, p<.01$)가 나타나 아버지의 결과와 같았다.

아동의 학교성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은 자신의

성적을 '상' 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중', '하' 라고 지각하는 아동과 인터넷 중독경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29, p<.01$). 이는 자신의 성적을 '중' 이나 '하' 라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직업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 인터넷 중독 경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36, p<.05$). 이는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인 아동이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인 아동보다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업주부와 직업이 있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부모의 연령과 가족형태는 인터넷 중독경향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인터넷 이용특성과 인터넷 중독경향

아동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인터넷의 이용기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인터넷을 하루동안 이용하는 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의 차이는 '3~4시간',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과 '1~2시간', '1시간 이하' 이용하는 아동의 중독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4.71, p<.001$). 즉, 하루에 인터넷을 '1시간 이하'

이용하는 아동보다 '1~2시간' 이용하는 아동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며, '1~2시간' 이용하는 아동보다는 '3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이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1주일에 접속하는 빈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의 차이를 살펴보면, 1주일에 인터넷에 '매일 접속' 하는 아동과 '3~4일 접속', '5~6일 접속' 하는 아동, '1~2일 접속' 하는 아동의 중독경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5.29, p<.001$). 이는 매일 인터넷에 접속하는 아동은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접속하는 횟수가 잦을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인터넷에 한번 접속 하였을 때 지속하는 시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을 살펴보면, 접속하여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은 '2~3시간' 이용하는 아동, '1~2시간' 이용하는 아동, '1시간 이하' 이용하는 아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7.28, p<.001$). 이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지속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을 주

<표 2> 인터넷이용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

(n=642)

변 수	구 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Duncan	F값
이용기간	6개월 이하	36(5.6)	38.25(11.65)		1.79
	6개월~1년	29(4.5)	42.24(14.23)		
	1년~2년	74(11.6)	39.70(13.69)		
	2년~3년	144(22.4)	41.84(12.70)		
	3년 이상	359(55.9)	43.13(14.26)		
하루이용시간	1시간 이하	247(38.5)	34.74(11.34)	a	64.71***
	1~2시간	293(45.6)	44.43(11.85)	b	
	3~4시간	75(11.7)	52.35(13.78)	c	
	5시간 이상	27(4.2)	56.33(15.61)	c	
주당접속빈도	1~2일	133(20.7)	34.79(11.52)	a	35.29***
	3~4일	192(29.9)	40.64(12.73)	b	
	5~6일	132(20.6)	41.58(11.40)	b	
	매일	185(28.8)	49.35(14.47)	c	
접속지속시간	1시간 이하	284(44.2)	36.00(11.39)	a	67.28***
	1~2시간	263(41.0)	44.08(11.81)	b	
	2~3시간	49(7.6)	51.04(11.66)	c	
	3시간 이상	46(7.2)	59.33(16.57)	d	
주이용장소	집	591(92.1)	41.88(13.79)	a	5.12**
	기타(학교, 친구집)	26(4.0)	39.73(9.17)	a	
	PC방	25(3.9)	50.44(14.48)	b	

p<.01, *p<.001

로 이용하는 장소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은 집이나 기타의 장소인 학교나 친구집에서 이용하는 아동과 PC방에서 이용하는 아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72$, $p<.05$). 즉 아동이 부모나 어른의 감독이 소홀한 곳에서 인터넷을 무절제하게 이용함을 알 수 있다.

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인터넷 중독경향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과 관련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또래관계의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변인들간의 공성선 진단결과 VIF는 1.79~2.08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은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에 따른 인터넷의 중독경향에 대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가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개방적 의사소통($\beta=-.18$, $p<.05$), 또래지지($\beta=-.34$, $p<.001$)가 인터넷 중독경향에 부적영향을 미쳤으며, 부-폐쇄적 의사소통($\beta=.16$, $p<.05$), 모-폐쇄적 의사소통($\beta=.11$, $p<.05$)이 인터넷 중독경향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을 23.0%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아버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지지가 낮을수록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3> 인터넷 중독경향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남학생(여학생)

	의 사 소 통				또 래 관 계					
	부-개방적	부-폐쇄적	모-개방적	모-폐쇄적	또래지지	차별/주도권	친 밀	우 의	대 립	인터넷
부-개방적										
부-폐쇄적	-.28*** (-.52***)									
모-개방적	.78*** (.70***)	-.18** (-.35***)								
모-폐쇄적	-.28*** (-.48***)	.70*** (.69***)	-.37*** (-.55***)							
또래지지	.35*** (.29***)	-.09 (-.15*)	.28*** (.28***)	-.13* (-.11*)						
차별/주도권	.18** (.13*)	.01 (.05)	.09 (.12*)	.08 (.05)	.52*** (.40***)					
친 밀	.22*** (.21***)	.05 (-.09)	.19** (.21***)	.06 (-.07)	.73*** (.71***)	.47*** (.35***)				
우 의	.26*** (.23***)	-.08 (-.07)	.16** (.20***)	-.02 (-.01)	.64*** (.71***)	.32*** (.27***)	.48*** (.56***)			
대 립	-.02 (-.04)	.25*** (.12*)	-.02 (-.07)	.23*** (.16**)	-.20*** (-.15**)	.03 (.08)	-.01 (-.12*)	-.01 (.02)		
인터넷	-.26*** (-.17***)	.36*** (.37***)	-.20*** (-.16**)	.38*** (.42***)	-.24*** (-.09)	-.02 (.09)	-.06 (-.09)	-.09 (-.02)	.19*** (.21***)	
평 균	3.49 (3.36)	2.61 (2.63)	3.67 (3.73)	2.73 (2.70)	3.50 (3.61)	2.96 (2.99)	3.07 (3.39)	3.43 (3.46)	2.60 (2.34)	2.28 (1.93)
표준편차	.85 (.87)	.60 (.66)	.83 (.79)	.65 (.67)	.69 (.65)	.57 (.55)	.74 (.70)	.70 (.73)	.76 (.70)	.71 (.62)

* $p<.05$, ** $p<.01$, *** $p<.001$

〈표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가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중독 변인	독립변인	남학생 표준화 계수 β	여학생 표준화 계수 β
인터넷 중독	부-개방 의사소통	-.18*	.04
	부-폐쇄 의사소통	.16*	.14
	모-개방 의사소통	.10	.08
	모-폐쇄 의사소통	.11*	.36*
	또래지지	-.34***	-.03
	차별/주도권	.09	.08
	친밀	.10	-.07
	우의	.10	.02
	대립	.04	.12*
	R ²	.230	.224
	F	10.47***	9.82***

*p<.05, ***p<.001

여학생의 경우는 모-폐쇄적 의사소통($\beta=.36, p<.05$), 대립($\beta=.12, p<.05$)이 인터넷 중독경향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경향을 22.4% 설명해 주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또래와 대립관계가 많을수록 여학생의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인터넷 이용특성,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아동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인터넷 이용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 차이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폐쇄적 의사소통 및 또래지지, 차별/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의 또래관계가 아동의 인터넷 중독경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아동이 인터넷 중독 경향

이 높았다. 또한 자신의 학교성적이 낮다고 지각한 아동일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인 아동이 전문직인 아동보다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어머니의 직업유무, 부모의 연령 및 가족형태에 따른 인터넷 중독경향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아동의 인터넷 이용특성에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이용하며, 인터넷에 매일 접속하고, 한번 접속하여 3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에 비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보다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아동이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기간에 따른 인터넷 중독 경향에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적게 하고 또래지지를 적게 받으며, 아버지·어머니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또래와 대립을 많이 할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구은정, 2003; 서주현, 2001; 유지현, 2003; 한복희, 2001; Brenner, 1997; Greenfield, 1999; Griffiths, 1997)와 일치하는 결과로, 남학생의 주변환경에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공통의 관심사가 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를 다른 활동을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낮거나 아버지의 직업이 생산직 및 단순노무직인 경우 인터넷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아동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지도가 어려워 아동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도록 방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을 낮게 지각하는 아동은 성적에서 갖는 낮은 자존감과 성취감을 인터넷을 통해 회복하려는 행동의 하나로 인터넷에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게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아동의 낮은 자존감이나 성취감을 인터넷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인터넷 이용시간이나 빈도의 증가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듯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이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면 인터넷의 중독경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정 및 학교에서 아동 스스로 인터넷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부모 교육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셋째, 남학생은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부모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여학생은 어머니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박정은, 2001; 박영희, 2002; 백승문, 2002; 송미화, 2001; 조춘범, 200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남학생이 부모의 의사소통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발달학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발달이 느리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부모와의 폐쇄적인 대화방식은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에서 오는 애정결핍을 채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문제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학생 또한 어머니와의 부정적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어머니의 잔소리와 꾸중과 같은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어머니와 여학생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와 서로에게 솔직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잔소리나 꾸중과 같은 일방적인 대화를 줄여 부모자녀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대화기법에 대한 강좌나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북돋아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또래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이숙, 남윤주, 2004; 송원영, 2000; 조춘범, 2001; 황수정, 2000)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남학생은 또래의 지지가, 여학생은 또래와 다투거나 논쟁하는 대립이 인터넷 중독경향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학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또래 관계 패턴이 다를 수 있다. 남학생은 발달학적으로 같은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또래와의 우정을 형성하기 때문에(정옥분, 2002), 또래지지가 낮으면 인터넷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은 또래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눔으로써 관계가 유지하기 때문에 친구의 거부와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기 때문에(Miller, 1990)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에 예민하여 현실세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또래관계를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하여 만족을 함으로써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인터넷 중독적 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할 때 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고 대처해야 하며, 아동이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추후연구로는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경향이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경향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생활환경이나 발달학적 특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폐쇄적인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아동이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이용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더욱 폐쇄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인터넷 중독경향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구은정(2003).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통제, 자기노출,

- 사회적지지 지각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2000). 아동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세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1990).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길(2003).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의 위험요소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희(2002).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인터넷 사용과 대인관계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화(2004). 컴퓨터 게임 몰입이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승문(2002). 사이버공간 중독집단 유형과 관련된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환경.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주현(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화(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원임(2001). 컴퓨터게임 문화가 초등학생의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 석(2000).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2000). 청소년의 감각추구성향과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상관성. 청소년학연구, 7(2), 117-136.
- 유지현(2003).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익명적 및 중독적 성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1), 77-91.
- 이 숙, 남윤주(2004).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한가정학회지, 42(3), 1-16.
- 이인숙(2003).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기대 및 자기효능감. 아동간호학회지, 9(4), 376-383.
- 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04). 2004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
- 정옥분(2002).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 조춘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복희(2001).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중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수정(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지지 지각 및 사회적응력 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Olson, D. H. McCubbin, H.I., Barn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y. Social science*, M.N: University of Minnesota.
- Brenner, V. (1997). Pat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ical Report*, 80, 879-882.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 in

-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2.
- Ginott, H. (1980). Approach to parent education, In F. J. Marvin(E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80-96
- Goldberg, I. K. (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rch discussion List.
- Greenfield, D. (1999). The nature of Internet: Psychology fators in compulsive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999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essachusetts.
- Griffiths, M.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III. Some comments o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80, 81-82.
- Grif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Fact or fiction. *Psychologist*, 12, 246-250.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hip. in B. Laursen(Eds.), *New direction for child development: Close friendship in adolescence*, 3-22. San Francisco: Jossey-Bass.
- Miller, K. E. (1990). Adolescents' same-sex and opposite sex peer relations: Sex differences in popularity, perceived social competence, and social cognitive skill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222-24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nati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eber, J. A., & Fournier. D. G. (1985). Family support and a child's adjustment to death. *Family relations*, 34, 43-49.
- Young, K. S.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Inc.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 Treatment.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

(2005년 6월 30일 접수, 2005년 9월 1일 채택)